

1지역 클럽들이 후원한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여명학교] 건립을 위한

‘아름다운 콘서트’



1지역대표
한태숙(서울RC)

지난 11월 7일 1지역의 서울, 신라,코암, 장충, 용산, 남술, 인터코리아 회원들은 물론 여러 로타리 클럽회원들이 압구정동에 위치한 장천아트홀에 모였다. 올해 1지역의 7개 클럽에서는 봉사기금을 모아 3650 지구의 보조금을 1대1 매칭펀드로 받아서 400만원을 탈북 청소년의 교육을 맡고 있는 여명 고등학교 건립 부지마련 기금을 후원하였다
매년 음악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예인교수 앙상블 (박윤희 단장은 현재 3650지구의 사무부총장)에서는 건립기

금 마련을 위해 자선 콘서트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여명고등학교의 이흥훈 교장 선생님께 직접 전달하게 되었다.
특히, 여러 후원 단체의 대표로 로타리 클럽의 봉사활동을 소개하게 되어 무척 감동적이었다.
1지역에서는 사전에 남산의 케이블 카를 타는 곳 근처의 빌딩을 빌려 약 90여명의 학생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명학교를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검토하였다. 임대 계약이 곧 끝나 새로운 부지에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를 후원하는 취지에 1지역 회장단의 공통적인 합의를 얻어 후원하게된 뜻깊은 봉사였다. 🌻

